

동네마다 공동서재를

尹浩美

조선일보 편집위원

좁은 집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나 역시 방 하나 아파트에 살았을 때 가장 난처한 것 중의 하나가 책들을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버리기엔 너무나 아깝고 둘 곳은 없고. 당장 보지 않는 책들, 1년에 한두번 뒤적일까 말까하는 전문서적들, 뒷날 '은퇴'했을 때 읽어봐야지 하면서 쌓아두었던 수필집, 시집, 소설들, 아는 분의 청에 못이겨 월부로 들여놓은 각종 전집들...

나는 그때 이 책들을 아파트 관리실에 기증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려가서 '빌려'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다. 만일 아파트 안에 도서관이 생긴다면, 내가 꼭 지니고 수시로 봐야 할 책과 특별한 추억이 있는 책을 제외하고 전문사전까지도 완전하게 기증할 결심이 간단히 섰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입구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노인정을 동네 '공동서재'로 생각해보기도 했다. 주민들의 책뿐만 아니라 책장까지도 모아서 설치하면 간단할 것 같았다.

그러나, 과연 이 책들이 소중하게 보존이 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자신이 없어져 버렸다. 공연히 내 필요한 책들만 없어지고 흐지부지될 것 같은 판단이 강해 결국 그 의욕은 '꿈'으로 끝나버렸다.

프랑스 파리에 가서 3년간 살게 됐을 때, 내 아파트 바로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동네도서관이 있었다. 어느날 급히 책을 봐야 할 일이 있어 이곳으로 들어가봤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여는 이곳에 하루종일 있으면서 나는 새삼스럽게 '선진국'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동네 시장에서 보던 수다스런 아주머니들,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시끄럽게 장난하던 낯익은 아이들이 모두 이곳을 제집다나들 듯 하루에도 몇번씩 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파리의 큰 서점 프낙에서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신간코너에서 시립 동네도서관에 근무하는 司書 한분을 만났다. 도서관에서 구입할 신간을 선택하기 위해 점심시간마다 나와서 뒤적여보면서 참고한다는 것. 그는 공금으로 구매하는 신간목록을 만들기 위해 신문·잡지의 출판기사와 광고, 방송의 독서프로그램을 모두 종합한 뒤 직접 이렇게 책방에 와서 점검해본다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무섭게 따지는 선진국에서 그러나 이 50대 여성사서의 책방나들이는 '순전히 개인취미'요 근무외의 무료봉사라고 했다. 좋은 책을 빨리 골라 구입하고 싶은 그의 욕심, 물론 그것은 그의 노력을 알아주고 사랑하는 동네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거의 모든 도서관이 수험생전용으로 돼버린 오늘, 우리도 이제 지역사회 테두리 속에서 한번 동네 도서관을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의 장서를 모아놓은 공동서재같은 시설을 할 수는 없을까. 나아가 아파트 관리실에서 비록 한달에 책 2권 정도 구입하는 소액이라도 신간구입비를 마련하여 반상회에서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가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면... 분명히 '좋은 책'이 주민공용으로 선정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좋은 책'을 내는 출판사들에겐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인가. 더 나아가 많은 책이 쌓이고 겹치면 이보다 못한 이웃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의 중산층 아파트에서 저 시골구석 새마을회관까지, 공금이 아닌 개인들의 힘으로 좋은 책들을 함께 사주고 보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런 단계가 돼야 하지 않을까.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주부가 '무언가 사회에 이바지할 길을 찾지 못해' 자살했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만일 이런 동네도서관이 보편화된 사회분위기라면 그같은 개인의 좌절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시론	2	학술출판, 무엇이 문제인가/金聖哉
세미나	3	불법복제로부터 저작물보호 시급하다
표지인물	4	민속극 연원 찾는 '한국연극의 고고학'
특별기획	6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⑤ —광복직후의 大邱출판계 ② 啓蒙社 창립 전후
서평	8	김채현 「춤과 삶의 문화」—金泰源 정지창 「서사극, 마당극, 민속극」—梁惠淑 9 유영대 「심청전 연구」—印權煥 민현기 「한국근대소설과 민족현실」—權寧珉 10 彭元順 「現代新聞放送報道論」—崔昌燮 蘇在英 「國文學叢書」—金泰俊
해외문화	11	프랑스 書評은 공정한가 일본의 민예운동가 柳宗悅 서한집
쟁점	12	'편견의 벽' 제대로 허물었는가/전태국
저자인터뷰	13	「韓國法思想史」 펴낸 崔鍾庫 교수
화제의 책	14	개화기 이래 땅의 침략사와 저항사 5 해방 4년의 출판계 爽相 한눈에 15 국내 최초의 불교경전 문헌해설 19 원예식물 총망라한 원색도감 출간
화제작의 주변	16	李相文의 「黃色人」을 말한다/권택영
출판화제	17	세계知性들의 실천적 미래전망 18 책에도 '뉴 패션' 바람이 분다 19 교보문고, '북디자인賞' 제정
지금 독서중	20	法頂수상집 「팅 빈 총만」—조계사 宗眞스님 구광본 시집 「강」—서울시네마타운 池載明씨 21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회사원 車孝善씨 한상진 「변혁의 주체는 누구인가」—회사원 權浩辰씨
나의 학문편력	22	한반도문제에 관심 큰 美·日 학계/金學俊 —나의 해외유학 및 연구생활 回想記 ②
얼굴	25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鄭漢樸씨
세계의 출판	26	망명 蘇작가 나보코프 서한집·外 28 신간안내 36 200자 안내/화제의 책 38 새로 나온 詩集 39 어린이책 들춰보기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프리즘	48	외래어 표기법有感/洪池雄 48 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